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한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평생학습 도시를 선포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30일 '2023 평생학습 정책포럼'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와 함께 협력·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협력과 도약, 평생교육

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 첫날인 29일엔 '대전환의 중심, 광역평생학습도시의 출범-광주를 시작으로'라는 주제로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정책포럼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구 모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선도도시로서의 도약을 다짐한다.

모든 시민의 삶이 학습과 하나가 되는 '광역 평생학습도시 광주' 선포식에

서 광주시는 5개 구와 함께 비전큐브 퍼포먼스와 선언문 낭독을 한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국가와 지역 이슈에 발맞춘 연계 협력 사업 발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 도모 ▲전 생애의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통해 향후 국가-광역-기초로 연결되는 클러스터 구축 및 집중진흥지구 등 연계 협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 평생학습 정책포럼'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인 오산대학교 박선경 교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광주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일 포럼·선포식 협력·도약 방안 논의...역량 강화 연수도 계획

포럼에서는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논의하고 향후 국가-광역-기초로 연결되는 클러스터 구축 모델 등 연계협력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평생교육 현장의 변화에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마련됐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의사협회 정책연구실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발표 등으로 평생교육의 대전환 시기가 도래한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삶과 배움이 하나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27일 오후 장성군 북이면 방장산터널 시점에서 열린 '도계-장성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개통식'에 참석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장성 북이-고창 도계 잇는 국지도 개통

인적·물적 교류 활발...양 지역 상생·동반성장 계기

전남도는 27일 "장성과 전북 고창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의 시설 개량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 도로 개통으로 통행 시간이 11분에서 6분으로 5분 단축돼 화물 차량의 물류비 절감 등 직접적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장성과 고창 양 지역이 공동체로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개통식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정철·김희식·박현숙 전남도위원을 비롯해 장성·고창군 주민, 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계-장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전북 고창읍 석정리에서 장성 북이면 달성리까지 총연장 5.97km 구간이다. 2018년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49억원을 들여 6년 만에 개통했다.

석정터널 등 터널 2개소와 교량 2개소를 신설한 도로 직선화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편의의 증진이 기대된다.

문금주 부지사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개통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혈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개통한 '도계-석정간 국지도'와 함께 장성·고창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면 '정치 현수막'서 계속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상업, 정치를 막론하고 최대한 정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해석이 애매한 제도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은 30m 이내 ▲우회전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육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육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규홍 "지역 의대 신설 다양한 의견 수렴"

"의대 정원, 수요자도 함께 논의 분과위 구성"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논의로 확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 중이다. 양측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27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코로나19안정

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는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 기구인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우니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여러 (보건의료) 현안이 결국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된다"며 "의대 정원은 지금 늘려도 12-13년 이후에 현장에 적용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두지 않으면 의료 현안을 해결하

기 어렵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그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견과 기존 의대 위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잘 듣고 해나가겠다"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지역외과제 도입과 관련해선 "위험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이 불균형 완화에 연결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40%) 상향도 제시했다.

그는 "의대 졸업생의 지방 정착에 아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데다 2023학년도 지역 의대 지원인재 비율이 이미 평균 40%에서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시일 내에 교육부와 협의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예비 명품강소기업' 육성 참가 기업 모집

광주시, 내달 27일까지 13곳...자금 우대 등 지원

광주시는 27일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형기술사업화·자금 우대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스타기업 7개사, 지역혁신선도기업 8개사, 글로벌강소기업 42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개사 등 총 131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선경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상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 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내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혼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